

현대인의 교양과 이미지 메이킹 주제로 신년 제직수련회 오늘 오후에 열려



2005년 신년 제직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중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제직수련회에 초청된 강사는 이영희 교수이다. 강의 제목은 “현대인의 교양과 이미지 메이킹”이다. 제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

도 진행될 예정이며, 잠깐 중예배실로 비에서 다과시간을 가진 뒤 이어 담임목사의 시간이 있을 계획이다. 저녁 6시 정도에 제직수련회가 모두 끝이 나면 지하식당에서 권사회가 정성껏 준비한 육개장을 함께 먹게 된다.

이번 제직수련회에 참석할 대상은 우리교회 제직회에 속한 모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 찬양대

원, 교회학교 교사들이다. 원칙적으로는 서리집사 이상은 모두 우리교회 제직회에 소속됨으로 참석하고 싶은 성도는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00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갖게 되는 신년 제직수련회에 많은 제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해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길 바란다.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가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열리는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는 주님의교회와 예수전도단의 협력으로 개최된다. (4면에서 계속)

비전팀, 방과 후 학교를 위한 교사기도회

비전팀, 방과 후 학교를 위한 교사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층 유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중학교이상 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방과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중·고등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셋째, 넷째 주에 수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기도회 및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영어, 수학, 논술, 미술, 피아노 등의 교사들이 자원을 하였지만, 아직도 교사와 보조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면에서 계속)

안수집사회 교회발전 위해 필요한 모임되길

안수집사회 정기모임이 1월 16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있었다. 안수집사 33인이 문동학 목사와 함께 대화의 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문동학 목사의 인사 말씀과 119사역팀의 일원으로 스리랑카에 다녀온 남장회 집사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2면에서 계속)

경조분과위원회 신년 모임

1월25일 오전11:30 1층 소예배실에서 경조분과위원회 신년 모임을 가졌다. 경조부원들이 도착한 후 1부는 예배로, 2부는 위원회 운영안대로 진행되었다. 김성관목사는 고전 15:1 ~ 4절, 12절, 17절, 44절 말씀을 전했다.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이 올때 우리는 why 라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는 what 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산 소망을 전하면서 서로 위로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게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한 안내는 문창복장로가, 부장과 조장인사 소개는 김성배 장로가 했다. 우리교회 경조부에서 봉사하고있는 성도는 50여명이 있다고 한다. (2면에서 계속)

조엘 소넨버그의 간증

조엘 소넨버그, 지난주일 청소년 예배와 4부 청년예배 때 간증



23일(일) 4부 예배시간에 열린 조엘 소넨버그 간증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중예배실의 자리가 없어 뒤에 서서 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시작한 그의 간증은

끝나는 시간까지 감동으로 채워졌다. 조엘은 생후 20개월 때 40톤 트럭과의 충돌사고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이후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왔다.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은 성취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고통 속에서 그를 지켜주었다. 교통사고 18년 후 재판정에서 가해 운전자를 용서한 조엘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주는 이들과도 사랑으로 품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엘 소넨버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지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정신학원 선교부

학원 선교부는 주로 정신여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순수하고 활기찬 시기의 청소년들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고민거리나 공부 등으로 인해 부담스럽고, 심각한 때도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가르치면서 또 하나의 중압감을 주는 자리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머리와 마음을 식히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고 친구들 서로 간에는 마음을 열고 알아가며 조금씩 이해해가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어가고있다.

정신여고 성경시간 중 한달에 한 번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가 연계하여 성경과목 시간 중 한달에 한 번, 한 반을 어머니 6~7명이 한 조가 되어 학생들 6~7명을 맡아서 활동한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네개반이 운영되었고, 올해에는 여덟개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중학교도 열세개반이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다. 찬송가 경연대회, 역량캠프의 기도시간, 세족식 등 학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학생과의 만남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간 이외에 한 달 동안 학생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영적인 만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서상의 안정을 준다거나, 체험을 통해 우리나 좋은 말들을 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를 통해 하신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남아있다가 먼 훗날 삶 속에서 그 아이가 꼭 필요로 할 때, 발아되는 잠재적 씨앗을 심어주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1면에 이어서)

정신학원 선교부

학원 선교부는 주로 정신여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정신여중 학원선교에 함께 하실 성도를 기다리고있다.

연락처: 이인호 목사님 (011-1706-2265), 이경자 집사 (031-714-1069, 016-348-1069), 지영민 집사(02-6241-7073, 018-339-7074)

<정신여중학교 선교 활동 내용>

1. 정신여중 인성훈련 (수련회 기간 총 7회)

대상: 중2

기간: 3월~7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내용: 수련회 시간의 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고민 또는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

2. 인성 훈련 후 결신자반

대상: 중2

기간: 3월~7월 (각 반의 성경시간에 따라 시간 변경됨)

내용: 수련회를 마친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결심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 영접을 도와주며, 교회로 인도해 주는 시간 (1시간 소요)

3. 기도 도우미

대상: 중3

기간: 3월~12월 (매월 성경시간 1회, 1시간 소요)

내용: 1달에 1번 학교 성경 시간을 통하여 6~7명이 그룹이 되어 중교 및 자신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 도우미

4. 종교 재미반

대상: 중3

기간: 3월~12월

내용: 학교 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여중 CA 시간을 통하여 개성이 강한 학생들의 고민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하며 개별 면담 및 상담하는 도우미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관심 있는 분)

비전팀, 방과 후 학교를 위한 교사 기도회



지난 화요일(25일)에는 자원한 7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방과후 학교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방과 후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되길, 잘 믿고 순

종하는 학생 뿐 아니라 믿지 않는 학생들도 교사들이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철저한 무장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크신 권능을 부여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동역할 청년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다음 주 교사기도회는 화요일 저녁 7시에 지하 영아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은 권사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자하는 젊은 마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방과 후 학교 교사의 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자원봉사연결데스크로 문의해주길 바란다.

목요모임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원 목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에게 희망중 계속 찬양하기를 부탁



1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파송되어 1973년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선교사 오대원 목사(미국명

David E. Ross)가 말씀을 전했다. 현재 예수전도단에서는 2005 워십 컨퍼런스(Worship Conference)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약 9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 컨퍼런스에 초빙강사로 미국에서 온 오대원목사는 이번 목요모임에도 말씀을 전했다.

히브리서 13장 10~16절은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을 하면 마귀가 혼돈을 느낀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많아진다. 그러나 찬양 속에 깊이 거하면 사탄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 오대원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했다.

여호사밧 왕은 큰 전쟁의 위협 속에 놓였을 때 여호와 의 얼굴을 바라며 군대 앞서 찬양대를 세웠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되어 풀무 속에 던져지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박되고 힘들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도 찬양하며 나갈 때 결박이 풀리고 자유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19절에서 왜 최악이 많은지, 왜 악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앞에 큰 환난이 있더라도 찬송의 제사를 바치기로 작정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삶이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래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에서 높은 곳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사슴으로 표현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날 중예배실은 자리가 부족해 좁혀

앉을 정도였고 은혜로 뜨거워져 찬양의 제사를 힘껏 올렸다. 오대원 목사는 마지막 기도하기 전 이렇게 고백했다.

“세상을 위해, 한국을 위해 목요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도 빨리 이런 모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을 대신해서 찬양할 때 한반도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이 좋은 큰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환란가운데 있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려 할 때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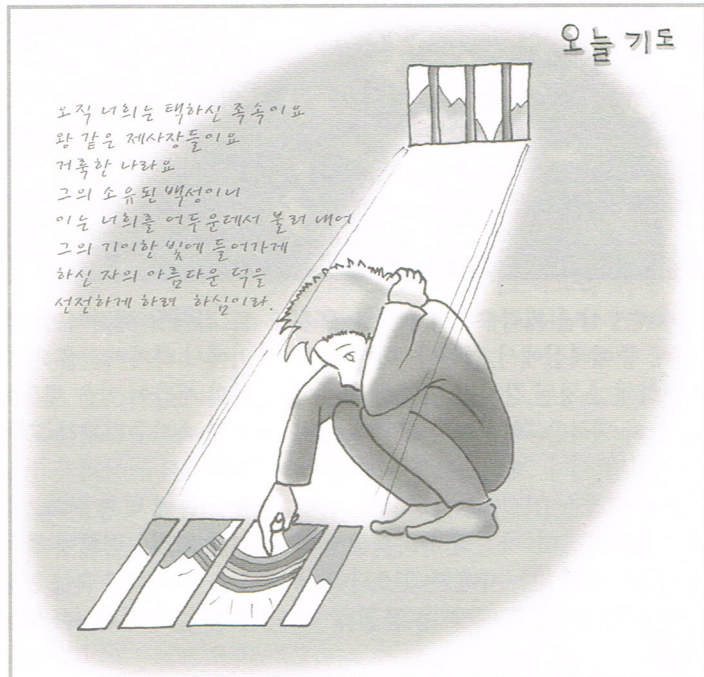
(1면에 이어서)

경조분과위원회 신년 모임



이들이 병마와 싸우다가 가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되면 더욱 안타깝다고 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이 평신도인데 경조부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위로해주시 더욱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평신도의 믿지 않던 가족들까지 교회로 인도하는 계기가 된적도 있다고한다. 장지가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조부원들이 동참해주어서 감격한 때도 있다고 한다. 올 한해도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난 성도가 가까이에서 경조부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든든하 마음이다



(1면에 이어서)

안수집사회 교회발전 위해 필요한 모임되길

교회의 발전, 안수집사의 역할과 영적 성장을 위한 것 등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평신도 선교사역에 대한 설명과 평신도 선교사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충길집사), 안수집사에 대한 교회 내에서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단열집사)과 1년에 최소한 1회 정도의 안수집사 수련회(혹은 세미나)를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한득현집사 / 문목사님 동의)하였다. 안수집사가 평신도들에 대한 도우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소식 전달시스템 체계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신정웅집사 / 문목사님 동의)도 있었다. 이 밖에도 많은 좋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동학 목사는 교회 발전에 필요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집사회의



모임이 2005년도에는 주님의교회 비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5-16구역

방학중에도 청개산모임 가져

겨울이라 날씨는 약간 추웠지만 5-16구역 성도들의 훈정에 따스함을 느끼며 취재할 수 있었다.

05년 1월 15일 해가 밝아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는 중요한 교제와 찬양모임이 구역장의 제안으로 구역원(비구역) 34명이 모여 청개산을 깨우는 기도모임으로 이어졌다. 남자 집사들은 청개산 산행을 통하여 친교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자 집사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였다. 그 음식이 얼마나 독특하고 맛이 있는지 감히 필자가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특이한 맛이였다.

그동안 일상에 바빠 모이지 못한 성도들도 모여 친교를 나누다보니 서로의 대화가 간증으로 가득하였다. 예수를 알기 전, 은혜 받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져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도 하고 생활의 방관자에서 모범적인 성숙한 가장으로 변했다는 집사도 있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와 삶이 마음 깊이 적셔져

있었다.

저녁을 먹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는데 한 청년과 집사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은혜와 감격이 넘쳤다. 김집사와의 말씀나눔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바뀌게도 되었고 삶에 있어서 더욱더 충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5-16구역은 관리 구역이었지만 지금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활성화 되었고 방학도 반납하고 계속 모임을 갖고 있었다. DAUM카페에서 5-16구역을 검색하면 조용를 집사의 카페가 있다. 참고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어와나

부모의 신앙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예정

날씨가 제법 추웠지만 어와나 클럽은 열기를 더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된다. 불티 단원들이 게임, 핸드북, 교제 시간등에 많이 적용된 모습이 다. 단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사회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게 된다. 많은 단원들이 핸드북 진도에 따라서 보석을 달게 되었다. 결석을 했었거나 조금 암송이 안된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전도사와 교사들은 각별히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약간 뒤에 처진 단원들이 의욕을 잃을까 싶어 조심하기 때문이다. 어와나 클럽에서는 부모들의 신앙을 높여려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 내용으로는 '부모님 이야기방'과 '말씀암송의 유익과 암송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듣기'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2월 세번째 토요일에 예정하고 있다. 어와나 교사들 모두는 돌아오는 금요일과 어와나가 쉬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이용하여 신약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단원중에 정유선 어린이가 수두를 앓고 있는데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예배위원회 모임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지난 1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60여명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이어서 서로 인사하며 얼굴을 익히고 교제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탁자마다 웃음꽃을 피우며 신앙적인 교제가 무르익었고 준비된 음식을 여러 성도들과 맛있게 나누며 지난한해 즐거웠던 일과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잘 채우는 한해가 되고자 하는 다짐으로 진행되었다. 이인호목사는 “준비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모든 예배위원들은 신성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준비된 예배, 정성이 깃든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 부원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행하여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정성이 없는 예배는 드려서는 안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예배부원들에게 전해주었다. 예배위원장인 김경빈 장로의 인사말과 부원들의 소개로 얼굴만 알았던 성도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게 되어 친교가 한층 더 깊고 알찼다. 다음번의 이러한 만남의 시간을 다시 기약하며 모임은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소개글

유성훈 / 전도사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소중한 일을 맡은 고등부 유성훈 전도사입니다. 저의 집안은 교육자 집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교사로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이 영향으로 가르

치는 일이 제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가족 중 가장 늦게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은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 하였습니다. 그 시절 하루의 대부분을 말씀묵상과 말씀연구에 쏟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저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저의 한계를 인식시키셨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얼마 전 안동집회를 끝내고 새벽에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인지 새벽안개가 드문드문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서서 달리던 차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마치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짙은 안개에 갇혀버린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개 속에서 내 차와 함께 달리던 앞 차가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한발자국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자가 있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안개 속에 갇혀버린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길을 잃고, 시대의 요구에 갇혀서 질주만을 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발자국 앞서서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자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신령한 양식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며, 저의 행복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꿈과 소망을 주님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며 보길 원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욱 / 전도사



안녕하세요.

중 등 부에서 동역하게 된 이재욱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신대원을 졸업하였고, 흥민기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청소년 사역 단체 브리지임팩트사역원에서 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남동생, 사랑하는 아내와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상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처음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 줄곧 청소년들과 함께 해오다보니 어느덧 '청소년 사역자'라는 꼬리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정작 제 자신은 청소년 사역이 내 비전이고 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역자로서 첫 만남을 청소년들과 갖게 되었던 이후 그들에 대해 배우고, 부딪히고, 뒹구는 동안 어느덧 청소년들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었고 그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청소년 사역을 지속시키는 이유였고 힘이었습니다.

열심 하나로 뛰어나다던 사역이, 그리고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던 청소년을 향한 꿈과 비전이 흥민기 목사님과 브리지임팩트의 좋은 식구들을 만나면서 보다 넓은 그림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는 제가 사역을 놓고 싶다고 해서 쉽게 놓을 수 없는 많은 이유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흘릴 눈물이 마르는 순간이 청소년 사역을 내려 놓아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히고 어려운 것이 청소년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모델 하나 제대로 없는 적박한 한국 교회 청소년 사역의 현실 앞에서 그러나 그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있는 청소년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레인보우(통합아동부)

초등학교 1~6학년과 교사 함해 무지개의 조화



2005년을 들어서면서부터 통합아동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좀더 체계적인 틀이 잡혀 운영되고 있으며,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 덕분에 아이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1월 23일 레인보우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시18:1)”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일곱개의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통합아동부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더해져서 일곱 개의 아름다운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무지개가 통합아동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썩트네(통합유아부)

교육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

2003년 통합유아부로 시작한 썩트네가 3년째를 맞이하며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교육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여 기존의 ‘탁아부 성격의 공동체’를 ‘교육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공과 공부 책을 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다. 1월 22일 토요일, 새로 썩트네를 섬기게 된 부장 집사 초대로 홍민기 목사, 김수연 전도사, 썩트네 교사들이 부장집사 가정집에서 썩트네 단합회를 하였다. 부장집사의 정성스런 준비와 빼어난 음식 솜씨로 다들 흡족해하며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함께 참석한 홍민기 목사는 교사들에게 썩트네는 탁아 부서가 아닌 교육 부서로서 거듭 태어나야 하니 교사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였고 교사들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썩트네 교사들도 잘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점들을 건의하였고 홍민기 목사도 건의사항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향후에도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부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올해 썩트네를 새로 섬기는 교사가 많이 늘었다. 작년 썩트네를 인도하던 교사들이 개인사정으로 많이 그만두며 올해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와 새로운 교사들로 기존 교사들은 새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1면에이어서)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

이 학교는 그동안 주님의교회에서 4회에 걸쳐 개최한 중보기도학교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 주제를 “서울지역의 영적 개혁”으로 잡고 있다.

소그룹 모임의 중보기도사역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각 지역에 전문적인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ul Hawkins, Gord Whyte, Dean Sherman, Tommi Femrite, 이용주, 홍성건, 문희곤, 김용의목사 등의 국내외 전문 강사들을 통해 중보기도와 예배, 영적전쟁, 서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중보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다. 이번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기 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신청한 16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요일 어제 실시하여 최종인원을 곧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 성도들을 위해 3월 28-30일 3일 동안 단 서만의 공개강의가 열린다.

약 500여명을 예상하고 있고 공개강좌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다.

이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기를 당부한다.

초등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며 교사MT

2005년을 들어서면서부터 통합아동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좀더 체계적인 틀이 잡혀 운영되고 있으며,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 덕분에 아이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1월 23일 레인보우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시18:1)”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일곱개의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통합아동부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더해져서 일곱 개의 아름다운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무지개가 통합아동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2003년 통합유아부로 시작한 썩트네가 3년째를 맞이하며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교육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여 기존의 ‘탁아부 성격의 공동체’를 ‘교육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공과 공부 책을 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다. 1월 22일 토요

일, 새로 썩트네를 섬기게 된 부장 집사 초대로 홍민기 목사, 김수연 전도사, 썩트네 교사들이 부장집사 가정집에서 썩트네 단합회를 하였다. 부장집사의 정성스런 준비와 빼어난 음식 솜씨로 다들 흡족해하며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함께 참석한 홍민기 목사는 교사들에게 썩트네는 탁아 부서가 아닌 교육 부서로서 거듭 태어나야 하니 교사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였고 교사들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썩트네 교사들도 잘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점들을 건의하였고 홍민기 목사도 건의사항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향후에도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부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올해 썩트네를 새로 섬기는 교사가 많이 늘었다. 작년 썩트네를 인도하던 교사들이 개인사정으로 많이 그만두며 올해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와 새로운 교사들로 기존 교사들은 새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지난 1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문막에 있는 금광교회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부연합캠프가 열렸다. 본 교회에서 지원하는 농어촌교회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 뜻 깊었던 본 캠프는 학생 230여명 교사 50여명이 참석하여 귀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교육부 홍민기 목사가 대표로 있는 브리지임팩트사역원에서 주관한 캠프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R.P.G(Role Playing Game) 형식에 담아

내었다. R.P.G란 게임의 참여자가 가상의 역할을 부여받아 정해진 이야기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방식의 게임을 말한다.

첫날 서먹한 분위기로 캠프를 시작한 학생들은 학년과 교회 구분 없이 한 조로 묶여 하나씩 프로그램을 수행해 가면서 청소년다운 열정과 패기,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였다.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이었다. 보통 특강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둘째 날 오전부터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 학생들은 함께 뛰며 땀 흘리는 사이 어느덧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 집회, 하루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열린 학생들은 열정적인 찬양 속에서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함께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계속되어진 홍민기 목사의 강한 메시지와 그 뒤 이어진 기도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기도회 이후 이어졌던 서로에 대한 축복의 시간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다. 각 학년의 학생들과 수고하는 교사들을 세워 진심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고 함께 무대로 올라와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지막 시간, 더 이상 누구도 서로를 맴돌며, 혹은 하나님을 맴돌며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 날, 갓피플 조한상 사장의 비전 특강과 함께 2박 3일 간의 귀한 시간을 영상을 통해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이번 캠프를 통하여 스스로의 마음에 담겨 된 보물을 되돌아보았다. 짧지만, 그러나 가볍지 않은 이 캠프기간이 귀한 씨앗이 되어서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란다.